









79. 6. 21 ~~한글서체~~

하와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 "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 22222 33333 44444 55555  
 66666 77777 88888 99999  
 00000 " 11111 22222 33333  
 44444 55555 66666 " 77777  
 88888 99999 " 00000  
 " 11111 22222 33333 44444  
 55555 66666 77777 88888  
 99999 00000 11111 22222  
 33333 44444 " " 55555  
 66666 77777 " 88888 99999  
 00000 " " 11111 22222  
 33333 44444 55555 66666  
 77777 88888 99999 00000  
 " 11111 22222 33333 44444 " 55555











북한에서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색이 이루어져서 사회주의 해방  
전쟁은 북반구로 유입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로 이끄는 것이다.

1. 남반구의 권력도 북반구와  
같은 것은 사회주의의 사색  
을 거두어 북반구 사회주의  
의 해방을 위하여 인식하여야  
하며 북반구에서 사회주의  
사색을 하기 위해서는 북반구와  
같은 것이 있다.

1. 사회주의는 북반구 사회주의  
라고 하면 북반구는 1945년 8월  
해방과 더불어 조국통일의 쟁  
점 의해서 우리나라 영토의  
사색을 지배하여야 한다.











동부의 제1차 10년 생활화사업의  
 일환으로 수목 식재사업으로서 1966년부터  
 사업으로 하여 1972년까지 7년간  
 2차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1차로 1966년부터  
 2차로 1972년부터 6년 동안 100%의 성공을  
 이룩한 것으로 되어 있다.

1. 2차로 1972년부터 6년간 100%의 성공을  
 이룩한 것으로 되어 있다.







24.2 여 1 회 이상 방문한 경우  
 방문 횟수 증가. 24.2 회 이상 방문한 경우  
 방문 횟수 증가. 83.10 회 방문한 경우  
 Hannover 회 방문 횟수 증가  
 20.2 회 방문한 경우 방문 횟수 증가  
 방문한 경우 방문 횟수 증가  
 방문 횟수 증가, 방문 횟수 증가  
 방문 횟수 (45, 방문 횟수 증가)  
 방문 횟수 (44, 방문 횟수 증가)  
 방문 횟수, 방문 횟수 9명이 방문한  
 방문 횟수의 방문 횟수로 2이 방문  
 방문한 방문 횟수의 방문 횟수 방문  
 방문 횟수의 방문 횟수 방문 횟수  
 방문한 방문 횟수 84.12 회 방문한  
 회 방문 횟수가 증가한 방문 횟수



















"부디 사랑 받는다" 라고  
 했다고 하니 저 친구는  
 "다들 못가겠으니 그냥 혼자  
 다녀 오세요" 라고 하여 제가  
 "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라고 하자 그는  
 "장님이 장님 친구를 데리고  
 우리도 가족 못하게 하니까  
 이다" 라고 하며다가 제가  
 계속 물어봐서 결국은  
 "1. 20 일 전" "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장님 친구 데리고  
 가라" 며 웃어 주었다.  
 1. 그는 85. 7 25일



1. 84.9.10 (수요일), 84.9.11 (목요일),  
 84.9.12 (금요일), 84.9.13 (토요일),  
 84.9.14 (일요일) 및 84.9.15 (월요일)  
 84.9.16 (화요일), 84.9.17 (수요일), 84.9.18 (목요일),  
 84.9.19 (금요일), 84.9.20 (토요일), 84.9.21 (일요일)  
 이 일주일 동안 11건의 사고  
 발생했다. 그 중 1건은 사망 사고  
 이었다. 11건의 사고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84.9.10 (수요일) 84.9.10  
 84.9.10 (수요일) 84.9.10 (수요일) 84.9.10 (수요일)  
 Bremen의 사고는 84.9.10 (수요일)  
 84.9.10 (수요일) 84.9.10 (수요일) 84.9.10 (수요일)  
 84.9.10 (수요일) 84.9.10 (수요일) 84.9.10 (수요일)  
 84.9.10 (수요일) 84.9.10 (수요일) 84.9.10 (수요일)  
 84.9.10 (수요일) 84.9.10 (수요일) 84.9.10 (수요일)







1. 2월 15일 1871년 2월 15일  
2월 15일 1871년 2월 15일  
2월 15일 1871년 2월 15일  
2월 15일 1871년 2월 15일

1. 2월 15일 1871년 2월 15일  
2월 15일 1871년 2월 15일  
2월 15일 1871년 2월 15일  
2월 15일 1871년 2월 15일  
2월 15일 1871년 2월 15일  
2월 15일 1871년 2월 15일

1. 2월 15일 1871년 2월 15일  
2월 15일 1871년 2월 15일  
2월 15일 1871년 2월 15일  
2월 15일 1871년 2월 15일  
2월 15일 1871년 2월 15일



1. 1870년 11월 29일  
 베를린에서 2차 회의  
 제1차 회의는 Kiel에서  
 2차 회의를 위해 1차 회의를  
 열었다.

1. 2차 회의는 1870년 11월 29일  
 베를린에서 2차 회의를  
 위해 1차 회의를  
 열었다.







112122 1122 11233, 112  
 112122, 212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Clinkastraße 5 11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122



1. 제1차 85.10 하순 오후 6시  
 Friedrichstr. 111 도청 3층에 대해  
 행정관리관 - 5층과 5층이 5층이  
 5층이 5층이 5층이 5층이  
 Kiel에 5층이 5층이 5층이 5층이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6시 까지 6시 까지 6시 까지 6시  
 Friedrichstr.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1. 제1차 85.10 하순 오후 6시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차의















2. 기이대로 영수증마다만 당시  
 2.의 단점과 장점을하여 부하의  
 2.의 장점을 기이대로 영수증으로  
 부하 영수증 여권이 아니었다  
 생각 합니다. 오경현 영수의  
 여권은 영. 11경 영수증에서  
 Kopenhagen으로 다른 때  
 이대에서 영수증이 다른  
 하여 영수증이 영수증에 영수  
 하여 영수증 수리하여 영수  
 증입니다.

1. 이상 영수증 내용은 사서  
 영수증입니다

1992.5.24.

위 영수증은 오 경 현



있어 주렴. 그리하여 아버지가 너희를 찾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내 품에 인겨 주렴.

하늘이시여! 아내와 두 딸을 보호하십시오!

#### 탄원문(款願文)

나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나의 친인속자(50)와 딸 헤원(16) 규원(14)이 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 인권 단체의 많은 도움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1942년 3월 11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인 부산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2년 국립 서울대학교 독어독문과에 입학하여 1969년 동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재학시 저는 서울에 있는 독일문화원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서울 지부장인 독일인 '에리흐 홀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아 1970년 10월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일 튀빙겐에 있는 튀빙겐 대학 경제학부에 입학하여 1976년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튀빙겐 대학 부속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신숙사(현재 계북중)와 결혼하여 2명의 딸을 두게 되었습니다.

큰딸 헤원은 1976년 9월 17일, 독일 쾰에서 태어나 쾰 근교 크룬스하겐에 있는 그림형제(Brueder Grimm)라는 국민학교에 다녔으며, 둘째 딸 규원은 1978년 6월 21일, 역시 독일 쾰에서 태어나 언니와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나는 독일에서 1971년 3월부터 독일에 유학중인 한국 학생들의 중심이 되어 결성한 민간 단체인 '민간회'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들로부터 한국이 독재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1980년 3월 독일 정부에 망명을 하였습니다.

독일 유학 13년이 되던 해인 1985년, 나는 브레멘 대학에서 '마르크스의 노동기치설과 생산가격 이론의 계구성'이라는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는 했지만, 나이가 43세가 되어 쉽게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고, 국내에 돌아와 대학 교수로서 일할 것도 생각해 보았으나, 과거 '민간회'라는 민간 단체에서 활동했던 경력 때문에 신변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귀국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실상가상으로 이내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당한데다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혈액을 취급하다 간염에 걸려 휴직 상태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가정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아체상 김종환(52)으로부터 "북에 가서 조국을 위해 경제학자로서 일해 볼 생각이 없느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나는 북한 체제가 나의 전공인 마르크스 경제학과 깊은 연관이 있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일해 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중에 독일에 있는 유명한 음악가인 윤이상(77)으로부터 '박사 학위 취득을 축하하며 당신의 해박한 지식을 북에 가서 활용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사신을 받고 임복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김종환의 소개로 동독 주재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는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 백서기관이란 사람을 만나 그로부터 "북한에 가서 경제학자로서 일하게 되면 메르세데스 고급승용차도 제공받고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이 보장되며 봉급도 많이 받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백서기관에게 "나는 마르크스 경제학 추종자로서 북한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일해 보겠다"고 임복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북행하기 직전인 1985년 11월 말경, 처와의 임복 문제를 의



논하였는데, 처음에는 치가 완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치에게 "우리의 어려운 살림 형편을 극복하고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과 건염을 앓고 있는 당신을 치료하려면 북한에 특이기는 건밖에 없다"라고 강력히 설득하였습니다.

그러자 반대하던 아내는 울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젠가 임복을 결정한 것 때문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를 자신은 북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으나 아내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북한에 들어가서야 깨달았습니다.

1985년, 나와 치지는 대남 공작원인 배서기관과 백치완(7)에게 독일 망명 여권을 맡기고 대신 그들이 만들어 준 오경현이라는 가공 인물의 북한 공무 여권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동베를린과 모스크바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나는 평양 근교에 있는 순안비행장에 도착하자마자 무인기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경계화차로서 일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우리 가족은 모두 평양 대동강 부근의 이노 깊은 산속에 있는 동북리초대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외부와 차단된 채 소위 밀봉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김일성에게 충성을 강요당하는 인간로봇으로 전락되어 갔습니다. 3개월 동안 초대소에서 사상 세뇌 교육을 받은 후, 평양시 흥부동에 있는 대남 후색 선전 방송국인 '구국의 소리' 방송 요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근곳은 그 방송이 남한 내에 실재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거나 혹은 지진하여 월북한 많은 남한 출신자들이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북한 당국이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 만든 공작 기구였습니다. 허황된 거짓말 마치 남한 내에서 방송하는 것처럼 속여 북을 추종하

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남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1986년 6월부터 1986년 11월 북한을 탈출할 때까지 이 방송국에서 민영훈 교수라는 가명으로 '중속경제 비판' 등에 대해서 녹음하여 이를 남한으로 송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은 임복하기 전에 나와 약속한 것과는 달리, 경제화자로서 일할 여건도 제공해 주지 않았으며, 철저히 나의 개인 생활을 통제하고 나의 요구 또한 완벽하게 무시하며 기만하였습니다. 1986년 11월 25일, 구국의 소리 방송국에 근무하고 있던 중, 북한 대남 공작 기구 책임자인 리창선(67세 현 사회문화부 부장)이 나에게 '독일이 유화하고 있는 유학생 2명을 덴마크로 유인하여 대동 임복시키라'는 끔찍한 공작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집으로 돌아와 치에게 이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치는 치에게, "인간으로서 도저히 살 곳이 못 되니 당신이 먼저 이곳(북한)을 탈출하여 독일 정부에 호소하여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복하기 직전까지 독일 망명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독일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86년 11월, 나는 사랑스러운 치와 귀여운 두 딸을 거둬와 같은 북한에 두고 나왔습니다. 독일 유학생 2명을 덴마크로 펜하겐으로 유인, 대동 임복하라는 공작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에게서는 북한 요원 백치완 등 2명이 따라붙었습니다. 나는 북에서 만들어 준 오경현이라는 가명의 여권을 소지하고 덴마크 코펜하겐 카스트로트 공항으로 침투중, 공항 사설 요원들의 도움으로 동행한 북한 요원을 미들리고 극적으로



탈출하여 독일로 돌아와 재정착하였습니다.

나는 북한을 탈출해서 5년 동안 독일에 거주하면서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남 공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이상을 만나 그에게 재북 가족을 송환시켜 줄 것을 수처에 걸쳐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1987년 10월과 1988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있는 치료부터 편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나는 평양시 형제산 구역 형산리 8반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후 1991년 1월, 윤이상은 처자의 육성이 녹음된 테이프 1개와 가족 사진 6장을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이상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제 고용 간첩이다. 은혜를 배풀어 준 김일성 주석을 배반했으므로 가족을 인질로 잡아 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다시 임박하여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통하여 재북 가족 송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최후 수단으로 나의 조국인 한국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1992년 4월 10일, 저는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에 접수하여 1992년 5월 22일 입국하였으며, 현재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국에 귀국하기 전인 1992년 3월과 4월 사이에 독일에서 재북 가족의 안전과 송환을 위해 UN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에 발생한 재북 가족을 송환해 달라는 간절한 내용의 호소문을 발송했습니다.

1992년 6월, 국제적십자사 홍콩 지사로부터 재북 가족의 큰 힘을 알아보겠다는 연락이 왔을 뿐, 여타 기구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재북시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북한에 있는 나의 가족 신변

에 위협이 따를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가족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사 여부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나는 매일 밤마다 처와 두 딸의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국제 인권 단체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나의 처와 두 딸은 지금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혹은 목살당하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처와 귀여운 두 딸을 다시 만나 내가 태어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진심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992년 9월

오길남



탈출하여 독일로 돌아와 재정착하였습니다.

나는 북한을 탈출해서 3년 동안 독일에 거주하면서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남 공작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이상을 만나 그에게 재북 가족을 송환시켜 줄 것을 수처에 걸쳐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1987년 10월과 1988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있는 치료부터 편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평양시 형제산 구역 형산리 8반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후 1991년 1월, 윤이상은 처지의 욕성이 녹음된 테이프 1개와 가족 사진 6장을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이상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제 고용 간첩입니다. 은혜를 배풀어 준 김일성 주석을 배반했으므로 가족을 인질로 잡아 둔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다시 입북하여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통하여 재북 가족 송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최후 수단으로 나의 조국인 한국에 들어가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1992년 4월 10일, 저는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에 접수하여 1992년 5월 22일 입국하였으며, 현재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조국에 귀국하기 전인 1992년 3월과 4월 사이에 독일에서 재북 가족의 안전과 송환을 위해 UN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에 불행한 재북 가족을 송환해 달라는 간절한 내용의 호소문을 발송했습니다.

1992년 6월, 국제적십자사 홍콩 지사로부터 재북 가족의 근황을 알아보겠다는 연락이 왔을 뿐, 여타 기구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재북시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북한에 있는 나의 가족 신변

에 위험이 따를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가족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사 여부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나는 매일 밤마다 처와 두 딸의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국제 인권 단체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나의 처와 두 딸은 지금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혹은 무실당하면서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처와 귀여운 두 딸을 다시 만나 내가 태어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진심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992년 9월

오길남

1992년 9월 10일



달리를 주고 갔다. 그 돈으로 나는 남식을 먹일 수가 있었다. 이심열 교수는 오길남을 구해 달라고 한국 대사관의 공사와 김시에게 간청했다고 했다. 꼭이 그의 간청만이 아니라 나는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참 못 들어 있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썼다. 일일이 이름을 댈 것도 없이 나는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나는 조국으로 돌아왔다. 내 걱정과는 달리 조국은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나는 돌아온 땅지가 되어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다. 조국으로 돌아왔어도 내 가슴은 쓰리고 아프다. 그것은 아직도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유수 인권 단체에 복한에 있는 내 가족을 찾아 달라며 보낸 탄원문을 소개하면서 긴 내 얘기를 마친다. 사랑하는 가족을 부르면서.

여보, 못한 지아비를 용서하고 믿어 주오.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이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요. 여보, 당신이 미치도록 보고 싶소.

혜원아, 규원아! 아이, 내 사랑하는 딸들이! 엄마와 함께 그 동토의 땅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랑스런 내 자식들이! 아빠는 오늘도 너희들이 보고 싶어 눈물짓는단다. 너희에게 할말은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지만 지금은 하나만 하련다. 내 사랑하는 딸들이. 부디 건강하게 살아만



#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가 성사되기까지

증  
제  
서  
호  
영  
의  
1

한국일보사가 주관한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는 2년여에 걸친 집념과 노력의 산물이다. 회의가 성사되기까지 숱한 우여곡절과 가슴 졸이는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역사적인 학술회의를 어떻게 해서라도 성사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은 온갖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했다.

회의를 주관한 한국일보사와 관계학자들은 이번 회의가 남북 학자들이 분단 후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학술 심포지엄이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다. 여기에서 심포지엄의 주제가 민족 최대과제인 통일이라는 사실은 관계자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심포지엄의 단초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92년부터 '남북한 정치학자대회'를 추진한 데서 비롯된다. 한국정치연구소의 이같은 의사는 평양을 방문한 제3국의 한 학자를 통해 북측에 전달되었다. 이같은 노력 끝에 93년에는 중국 吉林에서 남북학자가 자리를 함께하는 동북아정치학회가 성사될 뻔했으나 북측이 마지막 순간에 불참을 통고해 무산됐다.

한때 성사가 어려워 보이던 회의는 한국정치연구소 소장인 김부득 교수와 독일 쾰른대 宋斗律 교수와의 만남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金斗成 주석 사망 직후인 94년 8월 세계정치학회(IPSA) 참석차 베를린을 방문한 김 교수는 宋 교수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宋 교수는 최대한 노력을 약속했다.

宋 교수는 철학자로 해외학자 중 북한권력층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宋 교수는 94년 金斗成이 사망했을 때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평양에 조문을 갔고 북한당국은 그의 조문을 높이 평가해 극진히 환대했다. 宋 교수는 심포지엄의 성사에 적극적이었다.

북한당국은 심포지엄 주선자가 宋 교수라는 점을 고려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같다.

그 결과, 올해 6월 4일 남북학자들이 직접 대좌하는 준비 모임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남측의 김부득 교수, 白榮喆(건국대) 교수와 북측 김경남 통일문제연구소 부소장, 김관기 사회과학원 연구사, 그리고 宋斗律 교수는 베이징 천문왕즈반점에서 만나 회의주제, 시기 및 장소, 발표형식, 주최



자 문제 등을 어렵지 않게 합의했다.

북측은 먼저 "국제회의 같은 곳에서 남북학자가 만난 적은 있으나 남북한이 공동주최하는 학자 모임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회의의 의미에 대한 우리측 뜻에 동의했다. 숲 부소장은 "사회과학원, 조국평화통일위원회(祖平統), 김일성종합대학인들이 이번 회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는 숲容淳 대남 담당비서의 승락을 거쳐 숲正日 비서의 서명까지 받았다"고 말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회의 주제에 대해 남측은 정치성이 배제된 '광복 50주년' 또는 '구한말 정치사'를 얘기했으나 북측은 예상 밖으로 통일문제를 요구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갖는 역사성을 감안해 양측의 대표적인 언론사가 이를 특점 취재토록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그 결과 남한에서는 한국일보가 북한에서는 노동신문이 각각 단독 취재사로 결정됐다.

단독 취재사로 결정된 한국일보는 이번 회의의 역사성을 고려해 취재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회의 전반을 관장하는 주관사가 되기로 결정했다.

소주제에 대해서도 양측은 상호 양보로 합의를 만들어냈다. 북측은 당초 7·4 공동성명에서 합의됐던 통일3원칙 및 통일방식과 함께 '민족대단결'을 다루자고 제의했다. 우리측은 정치색채가 강한 '민족대단결'에 대해 난색을 표시, '화해협력'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는 심포지엄 전날에 열린 마지막 절충에서 '통일의 원칙과 화해협력' 및 '통일의 방식'으로 최종 조정되었다. 회의 명칭도 한때 '코리아 통일문제 학술회의'로 잠정 결정되었으나 북한측이 마지막 절충 과정에서 코리아라는 외국어가 싫다고 해서 '남북·해의학자 통일문제 학술회의'로 수정할 것을 주장해 이를 수용해 주었다.

북측은 회의시기를 광복절 전후로 원했으나 남측은 숲日成 사망 1주기인 7월 8일과 미묘한 시기인 8·15를 피해 7월 말을 제의, 북측의 동의를 얻어냈다.

회의는 7월 29일 주관사인 한국일보의 1면 대형 社告를 통해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측은 한때 회의의 사전 공개를 꺼렸으나 뜻깊은 행사를 미리 알리는 게 좋다는 한국일보의 설득을 마지막에 가서 받아들였다.

북한측은 회의가 끝나기 직전인 8월 1일 하오 서울에서 긴급공수해 온 학술회의를 대서특필한 이 날짜 한국일보 시내판을 보고 공정보도를 해줘 고맙다는 얘기를 전해왔다.

북한측은 회의가 끝난 뒤 정확히 11일이 지나 8월 12일 상오의 중앙방송보도를 통해 학술회의를 보도했다. 중앙방송의 보도내용은 비교적 상세했다.

남북 양측은 끝까지 체어플레이를 했다.

(특별취재반)



## 통일과 통일학술회의

권 만 학  
(경희대 교수)

「한국통일학술포럼」(대표 백영철 건국대 교수)은 북한의 「사회정치학학회」와 공동으로 1996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베이징(北京) 쉘라톤호텔(長城飯店)에서 「민족통일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통일을 위한 남북해의동포학자 학술회의」(이하 「통일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치화해 2개 분과, 평화체제 및 군사문제 1개분과, 경제사회 교류 및 협력 1개, 종합토론 1개 분과 등 총 5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우리측에서는 백영철 통일학술포럼대표를 단장으로 20명이, 북측에서는 김구식 통일문제연구소 부소장을 단장으로 9명이, 그리고 해외에서는 송두울 독일 훔볼트대 교수 외 3명 등 모두 33명이 참가하여 의미있는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이 회의는 제3국이 중개하여 남북한 학자를 초청하는 여타 국제회의와 달리, 남북한의 학술단체가 직접 주최가 되어 개최하는 유일한 통일 회의라는 사실에서 보여 지듯이 그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회의는 한 해전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남북해의학자 통일학술회의」를 실질적으로 계승한 것으로서 결국 두번째 회의가 되는 셈이다. 지난해 회의는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와 북한의 「사회정치학학회」가 주최했었는데, 남측의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당시 일부 참석자들이 다른 통일 전문 학자들과 함께 1996년 4월에 「한국통일학술포럼」(이하 「통일포럼」)을 결성하여 남한 주최측을 계승하게 되었다. 「통일포럼」에는 노장, 중견, 소장급을 막론하고 국내의 거의 모든 통일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를 만들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어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통일포럼」을 창설하면

서 이 포럼이 통일로의 긴 도정에 모두의 힘을 합쳐 결손하게 주춧돌 하나를 놓는 심정으로 임하자고 다짐하였다. 그런 우리의 마음은 「통일포럼」의 창립선언문에 잘 명시되었다. 우리는 또한 「통일포럼」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이번 학술회의의 성공적 운영에서 나타나듯이 정확한 것이었다.

1995년 회의는 길승홍 당시 서울대 교수와 백영철 교수가 1994년 8월 세계정치학회(IPSA) 참석 겸 베를린을 방문하여 송두울 교수를 만남으로써 성사의 물꼬가 트였다. 송 교수는 독일 국가박사 학위(Habilitation)를 소지한 저명한 철학 교수로 북한 권력층에 영향력이 적지 않은 인사로 알려져 있으며 길, 백 양교수는 대승적 견지에서 남·북한 학자들 간의 학술회의의 의미부여를 통해 회의 성사를 위한 송 교수의 헌신적 노력을 이끌어 냈다. 그리하여 지난 번에 이어 이번 회의 역시 송교수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

이번 회의의 구체적 논의를 위한 예비회담은 1996년 5월 바르샤바에서 열렸다. 물론 그에 앞서 백영철 대표를 비롯한 남한의 통일포럼 창설멤버들은 서울에서 수시로 모여 회의 성사를 위한 실무와 주제, 학자 및 논문 선정과 관련된 치밀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항상 모이던 3-4명의 준비팀의 노력이야말로 값지게 기록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헌신이었다. 특히 최장 집 교수는 연구년을 얻어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직접 참석하거나 전화를 통해 통일포럼의 일을 도약주었다. 다른 멤버들 역시 바쁜 가운데에서도 기꺼이 잦은 회의에 불려나와 회의준비를 위한 논의에 참석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몇몇 분들의 도움과 헌신은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만큼 열성적이었다. 실무를 맡았던 한 사람으로서 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는 사무국을 좀더 잘 운영하여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통일을 위한 고견만 말씀드리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예비 회담에는 남측에서 백영철 교수와 통일포럼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필자, 북측에서 김문일 박사(사회과학원)와 김관기 박사(사회과학원), 그리고 독일의 송두울 교수가 참석했다. 김문일 박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면이었다. 반갑게 인사를 1995년 회의가 "통일"을 총론적 차원에서 추상적으로 다루었고 친교의 시간을 통해 한 민족으로 어우러진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남북 학자들은 이미 우호 관계를 형성해 놓은 터였다. 올해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는지, 계속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을는지, 원천적으로 회의 자체가 성사될는지 등 이번 예비회담은 실로 분수령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구체적인 준비 사항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회의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는 열의에 더하여 지난해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무난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장애물은 예상했던 대로, 주제와 분과 설정에서 나타났다. 북한의 일반적 협상 방식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우리측 북안과는 천양지차였다. 그들은 갈등적인 핵심 이슈들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대주체



로 제시했으며, 이로부터 귀납적으로 결론에 이르는 5개의 단계적 전제와 결론을 소주제로 내놓았다. 북한은 1996년을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해"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들이 제시한 대주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대단결을 위한 과제"였으며 소주제로는 1)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것은 민족 공동의 염원." 2) "외부로부터 군사장비 반입을 막고 전쟁 연습을 증지시키는 것은 평화를 위한 현실적 요구" 5) "당국 독점대화론을 막고 정당, 단체, 각계 등의 대화를 실현하는 것은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지름길" 등이었다. 흡사 당국간 회의에서의 평행선과 비슷하게 예비회담은 출발했다.

우리측은 「남북합의서」과제에 관한 진전된 논의를 희망했다. 「한국통일학술포럼」은 남북한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기본합의서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당국간 공식 대화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학자들만이라도 기본 합의서 의제를 복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난항을 거듭한 끝에 결국 우리는 "대주제: 민족통일의 전망과 과제"와 정치화해, 평화체제 및 군사문제, 경제사회 교류 및 협력이라는 기본 합의서 3대 이슈로 소주제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대신 "민족대단결"의 색깔이 약간 들어간 "통일을 위한 남북 해외동포 학자 학술회의"라는 희극 명칭에 합의해 주었다. 그들의 이론에 근거해서라기보다 명칭으로서 이 정도는 우리가 수용할 만한 것이며, 북측이 귀국했을 때 필요한 정당화 (justifications)를 어느 정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백영철 교수의 해박한 지식과 온화하면서도 논리적인 설득력, 송두울 교수의 균형 잡힌 조정, 그리고 북측 대표단의 인내와 타협 정신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학자들은 전문성과 인품 양면에서 하나같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남측 학자들은 대표성과 전문성에서 돋보였다. 해외 및 북한 학자들 중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각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백영철 교수는 남측 대표단장으로서 회의의 성사에서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매끄러운 운영을 통해 단장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특히 그는 대표 연설과 북측 참여자 및 남측 학자들과의 부단한 접촉을 통해 주제에 대한 전문성에서도 설득력 있는 통찰을 제시하며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지난 4반세기 이상을 해외에서 보낸 송두울 교수는 이 회의의 산파역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진중하게 고민하는 "민족주의자"의 풍모를 보여 주었다.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에 걸친 그의 기여를 보면서 우리는 민족분단으로 인한 그간의 그의 고통이 남북한을 화해와 평화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여러 부분에서 이미 분명해진 남북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가 좀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그를 남북관계 개선에 활용한다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절게 받았다.

북측 참석자들은 대체로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련된 매너로 보아 국제 경험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총남이 고향인 북측의 김구식 단장은 온화한 인품과 원숙한 학식의 소유자로 비쳤다. 이는 북측 공식 주장을 이론적으로 주도하면서도 어조와 인상 등에서 부드러움과 여유가 있었다. 고위급 회담에서 참석했었던 원동연 박사는 강경할 것이란 예측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김판기 박사는 북측 주최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비교적 폭넓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남측과 북측의 주최측은 본 회의가 시작되기 이틀 전에 미리 도착하여 내용의 사전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한총련 사태가 일어난 지 불과 한달만이었고 출발 직전 나진·선봉 설명회 참관이 무산된 상황이어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백영철 교수는 상호성에 입각한 속칭 "지뢰 제거 작업"을 제안했으며, 북측은 이에 이의없이 동의하였다. 양측은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용어와 일부 내용을 논문에서 제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부분적으로는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다. 이로 인하여 필자를 비롯하여 우리측 참석자의 한 사람인 박명림 박사, 「통일포럼」 사무국의 허태희, 문병주 박사 등은 회의 개시일 새벽까지 논문 수정작업을 거듭해야 했다. 베이징과 서울의 컴퓨터 시스템이 다른 것도 작업을 한층 어렵게 했으나 내용합의의 과정을 생각하거나 통일로의 작은 초석을 놓는다는 생각을 떠올리면 아무런 어려움도 아니었다.

사후적으로 판단하건대 아슬아슬한 국면들이 있긴 했지만, 이러한 작업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백영철 남측대표의 연설처럼 학자들은 "같이면서도 화합하지 못하는(東而不和) 소인이 아니라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같은 목적으로 화합을 이뤄내는 민족의 올바른 큰 길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어 한 마음이었다. 특히 학문의 자유에 익숙한 남측 및 해외 학자들이 대의에 입각해 "지뢰 제거"에 협조해 준 것은 감명적이었다. 백영철 대표는 그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표하였고, 작업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대동의 정신이야말로 통일로 나아가는 마음들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남측과 해외 학자들의 논문은 독자적인 학술적 연구의 결실이었다. 반면 북측 논문들은 개인의 작품이라기보다 집체 작업의 결과였다. 북측은 토론에서 질문이 제기되더라도 함께 보여 토론한 뒤 통일된 답변을 제시했다. 남측 학자들은 "자기 책임성의 자각"에서부터 남북의 차이를 "달근대적 담론"으로 담아 내려는 고뇌와 함께 수준높은 전문성과 고뇌를 보여주었다. 북측 논문들도 지난 해에 비해 많이 세련되었으며, 직접적인 대남 비난을 삼가고 자신들의 공식 입장에 보다 설득력을 강화하려는 인내와 노력을 보여주었다. 북측 논문들은 △계급 문제가 아니라 민족 문제로서의 통일 △흡수 통일 배경 △양측의 제도가 공존할 수 있는 연방제 △정치 군사 문제 선해결 △"조미 잠정협정" 체결 등을 강조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역시 한총련 문제



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의 부당성을 지적한 한 해의 학자의 논문을 둘러싸고 심각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그러나 남북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는 서로의 견해차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데서 멈추고 점차 이해의 폭을 늘려 가자는 자제력을 발휘함으로써 "파국"을 막는 데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유일한 직접 토론의 장인 이 회의는 가늘지만 강한 힘으로 남북을 연결한 채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었다.

이번 회의를 마치며 몇 가지 소회가 강하게 남아 있다. 첫째, 이번 회의는 의미있는 성공작이라는 평가이다. 의미있다는 말은 남북 합의서가 당국 사이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사문화되어 있는데 반해, 민간 학자들 수준에서나마 합의서 의제들을 토론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이번 회의가 "성공작"이라는 평은 북측 김구식 단장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나왔다. 그가 폐회사에서 "지난해 회의가 평년작이었다면 이번 회의는 풍년작이다. 내년에는 대풍을 이루자"고 말했을 때 회의를 조직하는 데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통일학술회의」가 이제 제도화를 향한 첫번째 깊은 늪을 무사히 건넜다는 사실이다. 가시돋힌 토론에도 불구하고 남북 합의서 의제는 이제 성공적으로 복원되었다. 성공의 근거에는 물론 「어려운 이슈」를 후일의 과제로 미루며 「쉬운 이슈」에서 좀더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지혜를 통해 형성되기 시작한 「관용과 대화의 습관」이 놓여 있다. 당국간 관계가 개선되면 「통일학술회의」가 문자 그대로 통일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측은 초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일원 관계자들을 회의에 입회시키자는 우리측 요구를 결국 수용했으며 나아가 그들과의 대화에도 응했다.

셋째, 북측 학자들은 공식 노선에서 체제와 정권의 논리를 강하게 주장하지만 그외에서는 1950, 1960년대 우리의 모습을 연상하면 거의 틀림없다는 관찰로서 이는 공격이든 사적이든 대북 관계 개선에 참고가 될 것이다. 그들은 아직은 이기주의가 약하고 다른 사람을 대체로 신뢰하는 편이었으며, 나의 "이익"을 논하기보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좋아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과거 그랬듯이 물질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자긍심만은 대단하다. 따라서 그들이 가장 타기하는 인간형은 물질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주면서 거만한 모습을 보이는 인간 즉 「오만한 졸부」이다. 우리도 과거 떡 하나 얻어 먹기 위해 남의 가령이르 들어가는 일은 거부하지 않았던가.

마지막으로 우연이지만 기막힌 우연은 회의의 일정이었다. 회의를 9월 13일부터 3일간으로 잡자는 것은 필자의 제안이었다. 그런데 예비회담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시기에 나진·선봉 설명회 일정이 잡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이지만 우리 회의는 설명회 그늘에 덮힐 것이 뻔했다. 그런데 8월 들어 한총련 사태가 일어나자 설명회가 「통일학술회의」분위기를 띄워 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회의 직전 설명회 참가가 취소되

면서, 남북 관계의 맥락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회의는 단연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자 그대로 기적은 회의에서 돌아온 뒤에 일어났다. 9월 16일 김포 공항에 도착한 직후 우리는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후 북한은 예정된 해외 학술회의 참가를 모두 취소해 버렸다.

그간 「통일포럼」이 주최하는 회의를 제외한 많은 회의들은 황장엽 로동당서기가 주도한 것들이었다. 최근 황 비서가 망명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남북 사이의 많은 연결고리가 끊어지거나 앓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통일학술회의」만은 지금까지 “하늘”이 도와주었듯이 앞으로 「통일포럼」이 자기 “스스르”를 도움으로써 통일의 그날까지 남북을 면면히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남북학술회의 정치학회 주관 송두율 교수는 다리구실만”

길승흠교수 “내가 주도한 순수한 학문교류”

송교수 “남쪽언론 후원하고 대기업서 재정지원”

송두율 교수가 1995년 7월부터 김용순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등의 지시로 중국 베이징과 평양에서 6차례에 걸쳐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주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송 교수와 당시 학술회의 주최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길승흠 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95년 제1회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는 내가 주관했다”며 “94년 한국정치학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에 갔다가 송 교수가 북한 쪽과 연락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송 교수에게 제안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송 교수가 북한 학자들을 주선해 8~9명이 베이징에 왔고 이들을 비롯해 남한과 외국에서 40여명의 학자들이 모여 통일 문제 등을 놓고 학문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노동당이나 김용순 비서 등이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학문 교류 차원에서 열린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지원과 관련해 “당시 <한국일보> 편집국장이던 이아무개씨를 찾아가 학술회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후원을 받았다”며 “한국일보사가 대우그룹에서 지원받은 돈 가운데 1억원 정도를 후원했고, 관련 보도도 나갔다”고 말해 북한 지원설을 부인했다.

백영철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통일학술포럼 대표)도 “통일학술회의는 한국 학자들이 제안하고, <중앙일보> 등 언론사와 에스케이·삼성·엘지·대우 등 한국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 이뤄진 순수한 학술회의”라며 “북한 쪽에서는 단 1원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통일학술회의가 북한의 통일전선 공작에 이용됐다는 주장은 이념을 넘어 남북 간 학술교류에 상당한 업적을 쌓은 남북문제 전문가들을 곱하하는 것”이라며 “송 교수는 남북한 학자들 사이에 회의 주제를 두고 이견이 있을 때 조정자 구실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일학술회의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를 이런 근거를 들어 일축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